

#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家計의 貯蓄行態分析

—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ehold Savings Behavior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 The Case of Taegu —

啓明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講 師 : 趙 熙 今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Keimyung University

Lecturer : Hee Keum Cho

目	次
I. 問題의 提起	1. 조사대상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의 考察	2. 변수의 구성 및 자료처리
1. 가정생활주기와 가계저축	IV. 調査結果 및 論議
2.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III. 研究 方法	2. 가정생활주기와 가계의 저축행태
	V. 要約 및 提言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savings behaviors according to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377 housewives in Taegu were interviewed by questionnaire. Analysing methods employed are frequency, percentage and Chi-square test.

Findings are as follows ;

- 1) The average ratios of household saving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pecific stage of family life cycle.
- 2) Purposes of household saving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t each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 3) Selections of financial goods did no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 4) Selections of financial good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household savings.

I. 문제의 제기

한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부문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성장통화 즉 투자재원을 조달한다는 데에 있다<sup>1)2)</sup>. 그동안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그에 따른 높은 투자율에 미치지 못한 국내자본동원 능력은 결국 해외저축이나 통화증발에 크게 의존하게 하였다<sup>3)4)</sup>.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수반하는 고율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이룩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가계저축 중심의 국민저축이 그나라 국민경제의 투자수준 만큼 높아져야 한다<sup>5)</sup>.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율과 비교할 때 국민저축의 대 G.N.P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저축 안에서 가계저축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웃나라인 일본·대만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sup>6)</sup>.

가계저축의 증대가 국민저축의 증대를 가져올 뿐 아

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및 국민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며 또 한 가계의 입장에서는 저축형성과 미래의 보다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의 증대를 도모하는 방안과 가계저축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저축의 동기는 예비적동기·향상적동기·타산적동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6)</sup>. 이런 동기들 중에서, 실업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대비 또는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 등에 대비하는, 예비적동기의 저축은 특히 가계저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저축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가계의 저축행태는 가계가 속해있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하며, 이는 가계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기초가 되고자 함이다.

註 1)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1962~66	1967~71	1972~76	1977~81
총 투자율	17.0	26.0	27.1	30.9
국민저축율	8.8	16.0	20.8	22.8
민간저축율	7.7	10.3	16.4	16.3
정부저축율	1.1	5.7	4.4	6.5
해외저축율	8.2	10.2	6.7	6.8
통화량증가율	19.4	33.9	34.2	21.5
투자재원의자립도*	51.6	61.5	76.8	73.8
경제성장율	7.8	10.5	11.2	5.8

자료: 한국의 국민소득, 한국은행, 1982  
저축총람, 한국은행, 1983

<단위: %>

\* = 국민저축율  
총투자율

註 2) 貯蓄率의 國際比較

	한 국					일 본					대 만				
	77	78	79	80	81	77	78	79	80	81	77	78	79	80	81
투자율	27.3	31.1	35.4	31.5	28.4	31.1	31.1	32.9	32.7	31.6	28.6	28.7	33.7	34.2	29.6
국민저축율	25.1	26.4	26.6	19.9	19.6	32.7	33.1	32.1	31.8	32.2	33.0	35.2	34.6	32.7	30.9
가계저축율	8.6	10.0	9.7	5.5	4.7	15.2	14.7	13.2	13.9	-	13.5	13.6	13.5	12.4	12.7
법인저축율	10.9	9.9	9.7	8.0	8.1	7.7	9.0	10.3	9.7	9.1	11.8	12.8	11.3	13.3	10.9
정부저축율	5.6	6.5	7.2	6.4	6.8	2.3	1.4	2.5	2.8	-	7.7	8.8	9.8	7.0	7.3
해외저축율	0.6	3.3	7.6	10.2	7.9	△1.6	△1.8	0.8	0.9	△0.6	△4.4	△6.5	△0.9	1.5	△1.1

단위: %, 對 G.N.P 比率임.

자료: 저축총람, 한국은행, 1983.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가정생활주기와 가계저축

#### (1) 가정생활주기

일생주기(life cycle)의 개념을 가정에 도입한 가정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란 인간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결혼·출산·육아·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하는 것이다<sup>7)</sup>.

우리나라 가정생활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가정생활주기의 모형을 설정한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를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노년기의 6단계로 분류하였다<sup>8)</sup>.

또 가정생활주기는 가정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족생산의 목표를 설정하여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문제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예측하므로써 가정생활의 문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sup>9)</sup>, 장기가계계획(long-range financial planning)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그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주기를 크게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하위단계를 두어서 총 8단계로 가정생활주기를 분류한 Nickell등은, 각 단계마다 특정한 가계소득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요구 곧 지출과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가계소득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가계계획을 세우도록 제시하고 있다<sup>10)</sup>. 또 일생주기 모형수립에 의거한 한국인의 장기생활설계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를 가구형성 및 생활기반 정착기, 가계생활 신장기, 안정기 및 세대교체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그 각 단계에 따라서 소득과 지출흐름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기적인 생활설계의 모범적 시안을 작성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행태를 분석한 한국은행<sup>12)</sup>, 국민은행<sup>13)</sup>, 박<sup>14)</sup>, 조<sup>15)</sup>, 배<sup>16)</sup> 등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른 분석보다는 가구의 연령에 따른 분류만으로 그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

하고 있다.

#### (2) 가계저축

##### ① 가계저축의 결정요인

소득이 가계저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sup>14)15)17)</sup>. 저축은 소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함수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게 된다. 즉 소득과 저축율은 정의 관계를 유지하는가? 또 소득외의 저축율 변동에 관련된 소득변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J.M. Keynes는 저축은 당기의 절대소득의 함수라는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을 Dusenberry는 전시효과를 중시하여 과거의 소득수준 및 사회집단 내의 상대소득수준이 소비 및 저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을 Friedman은 개인의 소비는 자신의 장기적인 기대평균소득 즉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일시적인 잠정소득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반영된다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을 주장했으며<sup>18)</sup> A. Ando & F. Modigliani는 사람은 일생동안의 예상소득 전액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소비하고 저축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아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수준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반면 중·장년기에는 노년기에 대비하여 저축한다고 하는 일생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설정하였다<sup>19)</sup>.

일생주기반가과 저축에 대해 우리나라 도시 가계수지의 1963~1973년까지의 時系列자료 및 1971년의「크로스·섹션」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는<sup>20)</sup>, 연령계층이 높아감에 따라 한계저축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저축개념에 따라 달라짐을 나타냈다. 즉 교육비 및 내구소비재 구입을 소비지출이 아닌 저축의 개념에 포함시켰을 경우는 Ando-Modigliani의 일생주기가설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나, 교육비 및 내구소비재 구입을 소비지출에 포함시키면 저축에 관한 일생주기가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이외의 중요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으로는 미래의 소비 즉 저축을 선호할 수 있게 유인하는 금리, 인플레이션율과 貯量(stock) 개념으로서의 자산 및 부채 등을 들 수 있는데, 가계저축은 명목이 자유투자는 正의 상관 예상 인플레이션율과는 負의 상관을 나타낸다고

한다<sup>21)</sup>. 또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결정요인을 부분분석(Partial analysis)을 통해 소득원천과 직업·도시규모·가구원규모·교육수준 및 자산 선호패턴 그리고 일생주기가설과 저축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연구에서는, 가구당 저축율은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도시규모가 크고 도시평균소득이 높아질 수록, 가구원 규모가 증가할 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계층이 높아질 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또 직업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계가 기업이 가계보다 한계저축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sup>22)</sup>.

② 가계저축의 목표

성공적인 가계관리의 10단계를 제시한 Nickell 등은 가족이 가진 경제적 자원의 이용에 목표에 의한 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 기법을 적용하여 설명한다<sup>23)</sup>.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다음 목표를 확인하여,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초기단계에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그리고 체계적 접근법에 의해 가계관리를 설명하는 Deacon 등도 「투입」 요소로서 우선 가족의 경제적인 목표설정을 제시했다<sup>24)</sup>. 요컨대 목표는 관리적 활동의 동기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가치의 지표가 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를 동기의 다른 요소인 가치나 기준보다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그러나 가계에서 저축을 하는 목적은 대체로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며<sup>26)</sup>,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자녀교육이나 자녀의 결혼자금의 마련·불시의 지출에 대비한 자금마련·장래 및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옥의 신축이나 구입·사업자금의 마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7)</sup>.

③ 가계저축의 종류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저축의 종류에는 크게 제도금융저축(금융저축)과 제도외금융저축(사금융)으로 나누어지며 제도금융저축은 다시 은행예금과 비은행금

용기관저축(제2금융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7)</sup>.

이 중에서 경제발전에 직접 공헌하는 것은 제도금융이며, 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더 많은 가계저축이 제도금융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이나 귀금속등의 실물자산 혹은 채·사채등의 사금융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모아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또 더 효율성이 높은 투자부문에 자금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에서 선호하고 있는 저축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며 상당부분이 제 또는 사채등의 사금융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sup>註 4)</sup>.

최근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새 금융상품들이 제공되고 있으나<sup>28)</sup> 아직 일반 가계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의 고찰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저축행태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기로 한다.

연구문제 I :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II :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가 하고 있는 저축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III :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IV :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저축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는 가정생활주기 이외의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를 분석한 점과, 또 여러가지 저축행태 가운데서도 가계의 저축율·가계저축의 목적·선택하는 저축의 종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註 3) 徐炳淑, 都市主婦의 消費節約態度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1., 1978, p. 78,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가계의 저축목적이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② 不시의 지출을 위해서 ③ 家庭資産을 늘리기 위해서 ④ 토지·가옥의 구입을 위해서 ⑤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⑥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해서 ⑦ 장래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⑧ 기타 ⑨ 불품구입을 위해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註 4) 金光錫, 전계서, p. 99.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자산선호형태는 35%만이 제도금융자산을 가지고, 48%는 사금융형태의 저축을 하는데 이에 비해 일본은 65%이상이 제도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한편 1982년 국민은행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제도금융이 47.1% 사금융이 52.9%의 비율로 나타났다.

### Ⅲ.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가구는 가정생활주기를 고려하여 면접원이 임의로 추출하였다. 면접원은 제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학생들로, 질문지를 사용한 표준화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400부의 질문지를 면접에 실시하여 그중 미비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응답을 제외하고 377부를 조사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 2) 변수의 구성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는 劉 등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생활주기 모형을 설정한 연구에서의 6 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Nickell 등이 장기적인 가계의 소득과 지출요구를 고려하여 제시한 8 단계, Bigelow가 가정의 수입·지출, 자녀의 교육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7 단계를 고려하여, 첫자녀의 상태에 따라 다음의 7 단계로 나누었다.

I 단계 : 결혼하여 첫자녀 출산전까지의 형성기, II 단계 : 첫자녀를 출산하여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III 단계 : 첫자녀의 국민학교 시기, IV 단계 : 중·고등학교 시기, V 단계 : 대학교 시기, VI 단계 : 첫자녀가 군입대·취업등의 직업적응기, VII 단계 : 첫자녀가 결혼한 자녀 결혼기등으로 나누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설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부부가족으로서 마지막 자녀의 결혼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단 8 가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조사시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합하여 1984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처리는 제명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Package Program에 의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chi^2$  검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연구 결과의 이해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가구의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 113 가구로 전체의 30.0%이며, 핵가족은 264 가구로 70.0%이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29세가 23.5%이며 30~39세가 28.1%로 가장 높았고 40~49세가 27.8%로 그 다음이고 50~59세가 16.9%, 60세 이상은 3.7%였으며, 가정생활주기는 I 단계가 9.5%, II 단계가 23.6%, III 단계가 14.9%, IV 단계가 11.7%, V 단계가 11.4%, VI 단계가 10.6%, VII 단계가 18.3%이다. 주부의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하가 5.3%로 가장 낮고 국민학교 졸업 이상이 17.5%, 중학교 졸업 이상이 25.7%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33.7%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17.8%이었다. 가구주의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21.4%, 사무직이 26.8%이었으며 판매직이 29.8%로 높은 편이었고 서어비스·노동·기타 1차산업 관련자가 17.3%였으며 무직은 4.6%였다.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계소득 30만원 이하가 20.1%, 30~40만원이 24.3%, 40~50만원이 17.4%, 50~60만원이 15.2%, 60~70만원이 6.7%, 70만원 이상이 16.3%였다. 또 자가의 소유 여부는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69%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31%였으며, 전체의 39%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가정생활주기와 가계의 저축행태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전체의 96.6%인 364 가구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sup>29)</sup>. 한편 1982년말 대구시의 금융저축액은 전국의 3.9%에 해당한다<sup>30)31)</sup>.

첫째,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문제 I은 (표 1)에 나타난 바와같이  $P < .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상가구의 30.2%가 20~30%의 저축율을 보였으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보면 I 단계에서는 31.5%의 가구가 40% 이상의 저축율을 보인데 반해 V 단계에서는 8.9%만이 40% 이상의 저축율을, 65.8%의 가구가 20% 이하의 저축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Ando-Modigliani의 일생주기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가계의 평균소득은 가구주 연령계층이 높아감에 따라 증가하나 가계 평균저축율은 반대의 현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25~29세와 30~34세 계층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金<sup>32)</sup>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일반

표 1. 가정생활주기와 가계저축율

단위 : %

주기 저축율	I	II	III	IV	V	VI	VII
10% 이하	14.3	10.3	13.7	7.5	21.1	12.5	28.6
10 ~ 20%	11.4	24.1	17.6	25.0	44.7	27.5	27.0
20 ~ 30%	31.4	26.4	33.3	45.0	21.1	40.0	22.2
30 ~ 40%	11.4	16.1	17.6	10.0	5.3	7.5	12.7
40 ~ 50%	22.9	10.3	5.9	10.0	5.3	10.0	3.2
50% 이상	8.6	12.6	11.8	2.5	2.6	2.5	6.3
합 계 (n)	100.0 (35)	100.0 (87)	100.0 (51)	100.0 (40)	100.0 (38)	100.0 (40)	100.0 (63)

$n = 354, x^2 = 52.11 \text{ d.f.} = 30 \text{ } P < .01$

적으로 일생주기 가설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와, 가정생활주기 후반부의 중요한 지출인 교육비를 저축의 개념에 포함시켜야<sup>33)</sup> 하나 국민경제 전체로서가 아닌 응답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출을 저축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는 가정생활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평균저축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 단계인 형성기에 저축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 시기가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비교적 지출이 적은 시기이므로 장래 지출이 큰 시기를 대비하여<sup>34)</sup> 소득에 비해 많은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문제 II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저축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응답한 것을 분석하였다. 36.4%의 가구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라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에 주택마련이 23.0%, 장래의 생활향상을 위한 것이 12.1%,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에 9.6%,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5.8%,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5.2%, 가지고 있는 부채의 상환을 위해 3.3%, 질병 또는 갑자기 필요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해 2.5%, 기타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나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2.2% 정도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5)</sup>.

표 2에서 저축의 목적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6개의 목적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P < .0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곧 I 단계에서는 주택마련의 목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다음이 장래의 생활향상을 위한 것이다. II 단계까지는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목적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나, 첫자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III 단계부터 V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점차로 교육비 마련에 높은 빈도를 보인다. 첫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V 단계에서는 전체의 71.4%가 현재하고 있는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V 단계부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자녀 결혼기에서는 그 시기에 있는 조사대상가구의 38.2%가 응답을 하여 가정생활주기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상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저축목적의 차이를 자가 소유 여부를 통제 한 3-way crosstabs에 의해 분석한 결과 표 2-1은 더욱 명확하게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저축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종류를 모두 응답케 한 결과는 전체 대상가구의 72.7%가 1개 이상의 '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도금융 중에서는 보통예금이 포함된 저축예금을 55.2%의 가구가 보유하고

註5)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계저축의 목적은, 현재 하고 있는 저축의 목적을 3개 고른 다음 그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표시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세개의 목적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와는 차이는 있으나,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저축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2. 가정생활주기와 저축목적

단위 : %

저축목적	주기							
	I	II	III	IV	V	VI	VII	
자녀교육비마련	2.9	24.7	48.1	65.9	71.4	52.6	27.3	
주택마련	73.5	45.7	30.8	12.0	0	2.6	0	
노후의생활안정	0	2.5	5.8	0	5.7	5.3	21.8	
자녀결혼자금	0	0	1.9	0	14.3	21.1	38.2	
사업자금마련	0	9.9	1.9	14.6	0	5.3	3.6	
장래의생활향상	23.5	17.3	11.5	7.3	8.6	13.2	9.1	
합 계 (n)	100.0(34)	100.0(81)	100.0(52)	100.0(41)	100.0(35)	100.0(38)	100.0(55)	

$n = 336, x^2 = 229.65, d.f. = 30, P < .001$

표 2-1. 자가소유여부를 통제한 가정생활주기와 저축목적

단위 : %

저축목적	소유여부															
	자기								비자기							
	주기	I	II	III	IV	V	VI	VII	I	II	III	IV	V	VI	VII	
자녀교육비마련	9.1	36.6	62.9	73.3	73.3	51.6	28.3	0	12.5	17.6	45.5	60.0	66.7	0		
주택마련	18.2	7.3	8.6	0	0	0	0	100.0	85.5	76.5	45.5	0	16.7	0		
노후의생활안정	0	4.9	8.6	0	6.7	3.2	22.6	-	-	-	-	-	-	-		
자녀결혼자금	0	0	2.9	0	10.0	22.6	35.8	0	0	0	0	40.0	16.7	100.0		
사업자금마련	0	17.1	2.9	20.0	0	6.5	3.8	0	2.5	0	0	0	0	0		
장래의생활향상	72.7	34.1	14.3	6.7	10.0	16.1	9.4	0	0	5.9	9.1	0	0	0		
합 계 (n)	100.0(11)	100.0(41)	100.0(35)	100.0(30)	100.0(30)	100.0(31)	100.0(53)	100.0(22)	100.0(40)	100.0(17)	100.0(11)	100.0(5)	100.0(6)	100.0(2)		

$n = 231, x^2 = 134.36, df = 30, P < .001$

$n = 103, x^2 = 95.96, df = 24, P < .001$

있었다. 그러나 저축의 종류 중 보편의 의미보다는 투자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유가증권 즉 국·공·사채 또는 주식의 매입이나 투자신탁등<sup>5)</sup>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 중에서 각각 5% 미만이었다.

한편 각 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저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저축의 종류를 한가지만 제시하도록 하였을 때 '계'에 가입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21.3%, 저축예금 및 가계종합예금이 17.9%, 장학적금을 포함한 정기적금이 16.3%, 재형저축이 11.0%, 정기예금 9.4%, 보험에 8.0%, 사채를 4.7%, 주택부금에 3.0%를 나타냈으며 기타 부동산의 구입, 금전신탁, 농·수협·마을금고의

예탁, 상호신용금고의 이용,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은 각각 3% 미만의 가구가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저축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표 3에서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sup>6)</sup>. 그러나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재형저축이나 저축예금등 은행예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저축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저축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분석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가장 선

註 6) I 단계에서는 저축예금·재형저축이, II 단계는 "제", III·IV 단계에서는 정기적금,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표 3 참조).

표 3. 가정생활주기와 저축의 종류

		단위 : %						
저축종류	주기	I	II	III	IV	V	VI	VII
	계		17.6	24.7	18.9	16.2	31.6	20.0
사	채	0	4.9	7.5	10.8	5.3	5.7	1.9
정	기 예 금	8.8	11.1	7.5	8.1	15.8	2.9	14.8
저	축 예 금	20.6	21.0	9.4	16.2	18.4	28.6	24.1
정	기 적 금	17.6	13.6	18.9	32.4	15.8	20.0	13.0
재	형 저 축	20.6	14.8	15.1	8.1	5.3	8.6	9.3
주	택 부 금	8.8	3.7	9.4	0	0	0	0
보	험	5.9	6.2	13.2	8.1	7.9	14.3	7.4
합	계 (n)	100.0(34)	100.0(81)	100.0(53)	100.0(37)	100.0(38)	100.0(35)	100.0(54)

$n = 332, x^2 = 49.67, d.f. = 42, N.S.$

호하는 종류는 정기적금으로 23.6%가 선택하고 있으며 다음은 22.0%가 '계'에 가입하고 있었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계' 가입이 우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재형저축, 저축예금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주택마련에 가장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주택부금을 선택한 경우는 13.8%에 불과했다. 노후생활안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와 저축예금이 같은 수준으로 선호되었고,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에는 계가 주로 사용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는 계와 재형저축이 같은 수준으로, 생활향상을 위한 목적에는 저축예금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종류중 '계'에 가입하는 것은 저축 목적 대부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었다.

한편 각 가계에서 저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의 저축종류와 그것을 선택한 동기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본 것이 표 4~1이다. 표 4-1에 의하면 '계'는 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36.5%)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선택하고 있으며, 사채를 선택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87.5%)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며, 정기예금은 안전성에 그 비중을 높이 두고있고, 저축예금은 편리함 때문에, 정기적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또 재형저축은 수익성과 그것에 주어지는 여러가지 특혜때문에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부금도 역시 특혜 때문

표 4. 저축의 목적과 저축종류

		단위 : %					
저축종류	저축목적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노후 생활	자녀결혼자금	사업자금	장래생활향상
	계		22.0	21.3	25.0	32.3	25.0
사	채	3.3	7.5	6.3	0	12.5	7.7
정	기 예 금	8.1	10.0	12.5	19.4	6.3	12.8
저	축 예 금	15.4	16.3	25.0	12.9	18.8	28.2
정	기 적 금	23.6	12.5	12.5	16.1	12.5	15.4
재	형 저 축	9.8	17.5	6.3	16.1	25.0	7.7
주	택 부 금	0	13.8	0	0	0	0
보	험	17.9	1.3	12.5	3.2	0	7.7
합	계 (n)	100.0(123)	100.0(80)	100.0(16)	100.0(31)	100.0(16)	100.0(39)

$n = 305, x^2 = 73.06, d.f. = 35, P < .001$



표 4-1. 저축의 종류와 선택동기

단위 : %

선택동기 \ 저축종류	계	사	채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주택부금	보	험
여러 가지 특혜	2.7	0	3.1	4.9	3.4	20.0	54.5	14.3		
수익성	36.5	87.5	21.9	6.6	24.1	37.5	0	17.9		
안전성	6.8	6.3	50.0	8.2	37.9	17.5	9.1	17.9		
편리함	16.2	6.3	9.4	60.7	12.1	5.0	9.1	10.7		
권유에 의해	17.6	0	6.3	3.3	6.9	5.0	18.2	21.4		
특별한 이유없음	20.3	0	9.4	16.4	15.5	15.0	9.1	17.9		
합	계 (n)	100.0(74)	100.0(16)	100.0(32)	100.0(61)	100.0(58)	100.0(40)	100.0(11)	100.0(28)	

$$n = 320, \chi^2 = 203.16, \text{d.f.} = 35, P < .001$$

에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보험은 권유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계·사채등의 자금용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예금은 안전성과 편리함 때문에, 그 이외는 여러가지 특혜와 권유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V. 요약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평균 저축율은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I 단계인 형성기의 평균 저축율이 가장 높고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며 대학기인 V 단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그 후에는 다시 차츰 증가한다.

둘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I 단계, II 단계에서는 주택마련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며 III 단계에서는 주택마련과 자녀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 중요해지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자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다가 VII 단계에서는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가계가 저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고 있는 저축의 종류와 가정생활주기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넷째, 저축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저축의 종류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계가 모든 목적에 높은 비중으로 선택되고 있었다. 또 선택한 저축의 종류와 그것을 선택한 동기들 사이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 연구에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가계의 저축행태는 가정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수인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가계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평균 저축율은 가정생활주기의 초기단계에서 오히려 높으므로 저축을 권유하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의 목적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저축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저축의 종류, 또 특정한 종류를 선택한 동기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계가 원하고 있는 저축의 목적과 선택하고자 하는 동기에 알맞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자금용권에 속해 있는 가계저축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도금융안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겠다.

## REFERENCES

- 1) 趙 淳 : 金融産業의 長期的 展望,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비봉출판사, 1981, p. 183.
- 2) 저축총람, 한국은행, 1983, pp. 4~5.

- 3) 朴在潤: 亞細亞諸國의 貯蓄行態比較, 內資動員極大化에 관한 「심포지엄」資料, 한국은행, 1978, pp.33~35.
- 4) 韓國의 國民所得, 한국은행, 1982, pp. 25~27.
- 5) 金秉柱: 韓國의 家計貯蓄一現況, 問題 및 對策,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 6) J.M. Keynes 著: 金斗熙譯, 雇傭·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 민중서관, 1970, pp. 114~116.
- 7) 劉永珠: 家族關係學, 교문사, 1980, p. 83.
- 8) 劉永珠·洪亨沃: 家族生活週期 模型設定과 住居意識 및 行動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 12집, 1983, pp. 57~58.
- 9) 玉先花: 한국가정의 가정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자대학 생활과학연구논집, 제 1권, 1호, 1980, p. 2.
- 10) Nickell, Rice &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ed., John Wiley & Sons Inc. 1976, pp. 308~309.
- 11) 金秉柱: 韓國人의 長期生活設計研究,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pp. 206~219.
- 12) 한국은행저축부, 저축시장조사, 1979.
- 13) 국민은행: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보고서, 1982.
- 14) 박재윤: 서울 非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 韓國의 民間貯蓄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79.
- 15) 조대경·박재윤: 韓國人의 貯蓄行爲에 관한 研究, 社會科學研究報告書 I, 1977.
- 16) 배무기: 서울 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 韓國의 民間貯蓄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79.
- 17) 金光錫: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한국개발연구원, 1975.
- 18) 조대경·박재윤: 전계서, pp. 11~18.
- 19) A. Ando &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963.
- 20) 金光錫: 전계서, pp. 84~91.
- 21) 조대경·박재윤: 전계서, pp. 18~24.
- 22) 金光錫: 전계서, pp. 101~105.
- 23) Nickell, Rice & Tucker.: *op. cit.*, pp. 273~278.
- 24) R. Deacon & F.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1981, pp. 119~120.
- 25) I.H. Gross, E.W. Crandall & M.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ed. Prentice Hall. 1980, pp. 75~77.
- 26) 배무기: 전계논문, p. 90.
- 27) 한국은행저축부: 저축시장조사, 1979, p. 9.
- 28) 조선일보: 1984. 4. 6日字 "새 금융상품 많이 나왔다"와 1984. 5. 11日字 "관심끄는 주식형 수익증권" 참조.
- 29) 조대경·박재윤: 전계서, p. 41. 조사대상의 69.2%가 저축보유, 30.8%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76.8%가 저축보유 23.2%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 저축총람: 한국은행, 1983, p. 264.
- 31) 대구·경북지방 금융경제통계: 한국은행 대구지점, 1983, 4/4, p. 8.
- 32) 金光錫: 전계서, p. 86.
- 33) 金秉柱: 전계서, p. 83.
- 34) 李基春: 家庭經濟學, 교문사, 1984, p. 161.
- 35) 徐炳淑: 家庭經濟學, 수학사, 1982, p. 155.